

佛國寺 發掘調査 概要

金 正 基
金 東 賢
申 榮 勳

一 序 言

二 調査方針

三 發掘調査 概要

- 1 大雄殿 一廓
- 2 極樂殿 一廓
- 3 毘盧殿址 一廓
- 4 觀音殿址 一廓
- 5 出土遺物

四 實測調査 概要

- 1 平面 實測値
- 2 境內 主要木造建物 實測値
- 3 無說殿址 實測値
- 4 毘盧殿址 實測値
- 5 觀音殿址 實測値
- 6 水平差 實測値
- 7 境內 石造遺物 一覽表

一 序 言

佛國寺의 發掘 및 實測調査는 境內 主要 建物의 復元에 앞서 學術的인 考證資料를 얻기 위하여 實施된 復元 建物址에 對한 發掘 및 實測調査

查이었다.

이 調査는 一九六九年 八月二十九일부터 着手하여 一九六九年 十月三十一일까지 施行되었으며 그후 調査資料의 整理는 一九六九年 十一月十四일에 完了되었다. 그간 동원된 延人員은 調査員 二八〇名 雜夫 一三五〇名이다. 調査要員으로는 金正基 金仁鎬 申榮勳 金東賢、調査助手로는 崔夢龍 徐正男 朴志明 朴宗錫 朴英八 등이 參加하였다.

이 報告는 發掘 및 實測된 調査內容의 概略만을 整理한 것이므로 不充分한 곳이 있을 것이다. 仔細한 報告는 正式報告書가 刊行될 것이므로 그곳으로 미룬다.

二 調査方針

發掘 및 實測調査는 調査員의 全員 一致調査 方法을 擇하기로 하였으며 發掘은 學術調査보다 復元設計가 先決問題이므로 必要 以上の 發掘은 避하고 最少限의 遺構調査를 實施하되 學術調査의 資料는 그 範圍內에서 最大限의 效果를 얻을 수 있도록 調査方案을 세웠다. 또한 石築前面의 九品蓮池 調査는 木造建物이 復元된 다음 適當한 時期를 擇하여 發掘토록 意見을 모았으므로 이번 調査에서는 除外되었다.

木造建物 및 石造遺物調査는 發掘中 隨時로 實施하되 實測圖를 作成키로 하였으므로 大雄殿을 비롯한 主要 既存 建物과 前面 石築 및 散在된 石造物等の 實測圖가 完成되었다. 이 部分의 細部 調査 亦是 우선 設計에 必要한 部分에 限하고 參考資料에 對한 計測은 作業進涉에 따라 適宜實施키로 하였다.

調査日誌의 作成과 參考資料의 記錄은 調査員 全員이 記錄토록 하였으며 出土된 遺物整理는 當該日 整理 保管키로 하였다.

三 發掘調査 概要

1 大雄殿 一廓

가, 東廻廊址

(1) 發掘前의 狀況

大雄殿 東廻廊址는 大雄殿 동쪽 丘陵에서 밀려 내려온 土砂에 의하여

깊이 묻혔으며 그곳에는 日政時에 植樹한 丹楓나무가 十餘株 있었다. 또한 傾斜된 地表面에는 大雄殿 周邊의 여러 施設物에 使用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大雄殿 앞 築台用 欄干石을 비롯하여 各種 礎石、基壇面石、地台石等 여러가지 石材가 無秩序하게 놓여 있었고 廻廊 基壇의 西緣部로 推定되는 位置에는 南北으로 길게 近世에 施設된 石造排水溝가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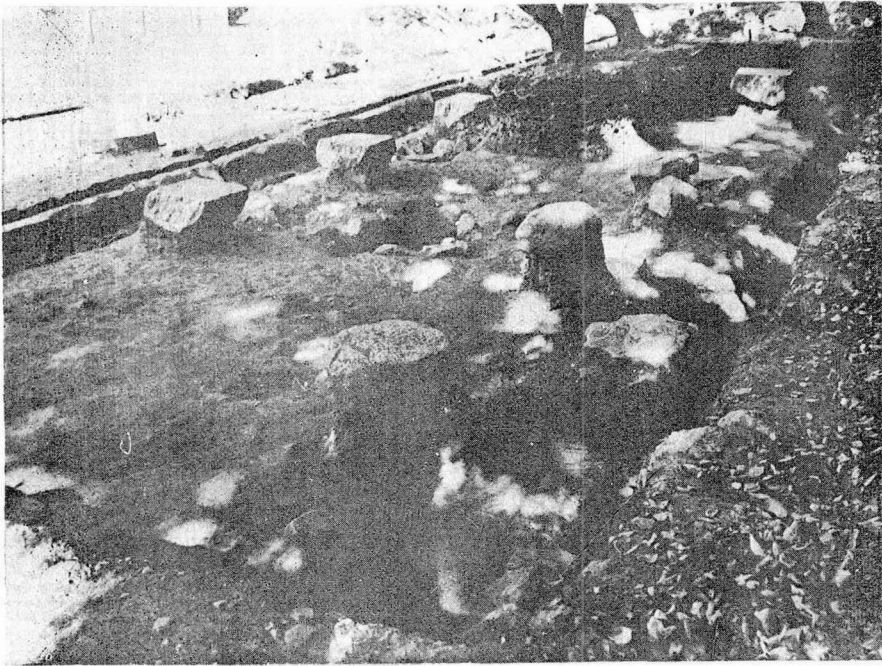


圖 1. 東廻廊址 (南에서)

廻廊 基壇址가 이로 인하여 破壞된 것이 아닌가 念慮케 하였다. 이외에 多寶塔 東北쪽 約 十六 m 되는 곳에 境內 警備를 爲한 警備室이 있었다. 發掘에 着手하기 前에 우선 廻廊址에 散在한 各種 石材를 東쪽 丘陵上의 平坦한 곳으로 種類 別로 整理 運搬하였고 警備室은 完全히 解體 除去하였다.

(2) 發掘經緯 및 結果

日政時의 修理로 인하여 創建時의 基壇이 甚하게 破損된 것으로 생각되는 大雄殿 東廻廊의 隅部와 이에 連續되는 大雄殿 東쪽 丘陵部로 出入하는 通路의 一部를 除外한 그밖의 部分에 네개의 楹을 東西로 남기고 全面을 五個區로 區分하여 發掘하였다.

(가) 李朝 重建時의 礎石列 發見

現地表에서 西쪽 二十 cm 內外, 東쪽 五十 cm 內外 밑에서 一邊이 六十 cm 內外의 柱座없는 方形礎石과 上面이 평평한 比較的 大形의 不整形 自然石으로 된 礎石이 南北으로 두줄 나타났다. 礎石列 가운데 몇 곳은 缺失된 곳도 있었으나 比較的 整然하게 遺存하였으며 그 柱間은 二十間이었다.

地表에서 이 礎石面까지의 사이에는 李朝期의 蓋瓦片을 비롯하여 李朝磁器片들이 出土되었다.

이러한 出土 遺物이나 礎石列의 性格으로 보아 李朝 重建 以後에 이리한 큰役事가 있었다고 判斷하기가 文獻資料上으로 보아 어려울 것 같으므로 일단 李朝 重建時 東廻廊址로 推定하여 調査를 繼續하였다.

이 礎石 上面 가까이에서는 아무런 舊地表나 基壇面으로 생각되는 地面이 나타나지 않았고 廻廊址 北方部에서는 불에 탄 흙이 많았으며 두 줄의 礎石列 礎石사이에에는 雜石이 깔려 있는 곳이 많아 그 部分이 壁體로 되었던 것을 짐작케 하였다. 이러한 狀況으로 보아 李朝 重建의 東廻廊은 所謂 말하는 廻廊이 아니고 바닥이 마루나 溫突로 된 僧房의 性格을 가진 建物이었던 것 같다.

이 廻廊 東쪽 礎石列에서 約 五十 cm 東쪽에 이와 平行하여 南北으로 約 一 m 程度로 나타났다.

이것은廻廊 東쪽 丘陵과의境界가 되는築台였다.

이礎石列과 그周邊의實測을 끝내고 그下部調査를續行하였다.

(나)、創建當初의廻廊址發見

李朝 重建時의廻廊礎石을 일단 그대로 두고下部發掘을繼續한結果 李朝 重建 礎石의 上面에서 約 五十 cm 밑에 安定된 建物 基壇面으로 생각되는平坦한面을 찾았다. 이것은東廻廊址의 南北 中央部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그面을 쫓아廻廊 全面을發掘하였다. 그結果 역시二列의礎石址와 方形礎石이 發見되었다.礎石이 遺存된 處는 東·西 두 줄의礎石列 가운데 東쪽 礎石列에 많이 있었고 西쪽 礎石列에서는廻廊 北端部에서 두개가 發見되었을 뿐이다.發見된礎石은 역시柱座가 없는一邊長 六十 cm 內외의 方形이었으며礎石이 빠져나간部分에는直徑約 八十 cm 內외의礎石址가 나타났으며 그구멍 속에는直徑 十五 cm 程度의積心石들이 박혀 있었다. 이礎石 및礎石址는 李朝 重建時의礎石列과 같은 南北線 위에 있었으나 柱間은 서로 달라 上下가 一致되는 것이 매우 적었으므로 李朝 重建時의 柱間은 創建時와는 전혀 無關하게만 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단지 南北線이 一致된 것은 南쪽의築臺와의關係로서 必然적으로 一致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廻廊 基壇 上面 中央部에는 部分的으로 불에 탄 흙과 形態가 고르지 않은 구멍이 있었고 이 구멍 속과 周邊에도 불에 탄 雜石이 박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創建 後 그리고 壬亂 以前 어느 時期에 一部 방을 드리거나 또는 부엌을 만들었던 흔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廻廊 北端部는 一間이 西折하여 無說殿의 側面 中央에 接하였고 東北 쪽 귀에는廻廊 基壇面에 中世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우물이 거의 完全한 狀態로 露出되었다. 이 우물은 近世까지 使用되었다는 口傳이 있으나 李朝 重建時의礎石 上面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으므로 아마 後世에 그 위에 다시 어떤 架構를 하여 우물로 다시 使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廻廊址의 基壇을 南과 北 두 곳에서 東西로 土層調査發掘 트랜치를 넣은 結果 基壇 中央部에서 約 二×五 cm의 基壇을 整地한 黃褐色 砂

質土層이 있고 그 밑에 自然土層이 나타났으므로 이 基壇이 創建 當初의廻廊 基壇임을 確證하게 되었다. 또廻廊 北端部 가까이에서 遺存된礎石과礎石址를 連結하는 土層調査發掘 트랜치를 넣은 結果 礎石 下部와礎石址 下部가 모두 커다란 自然石을 겹겹이 쌓아 올려礎石 下의 補強을 充分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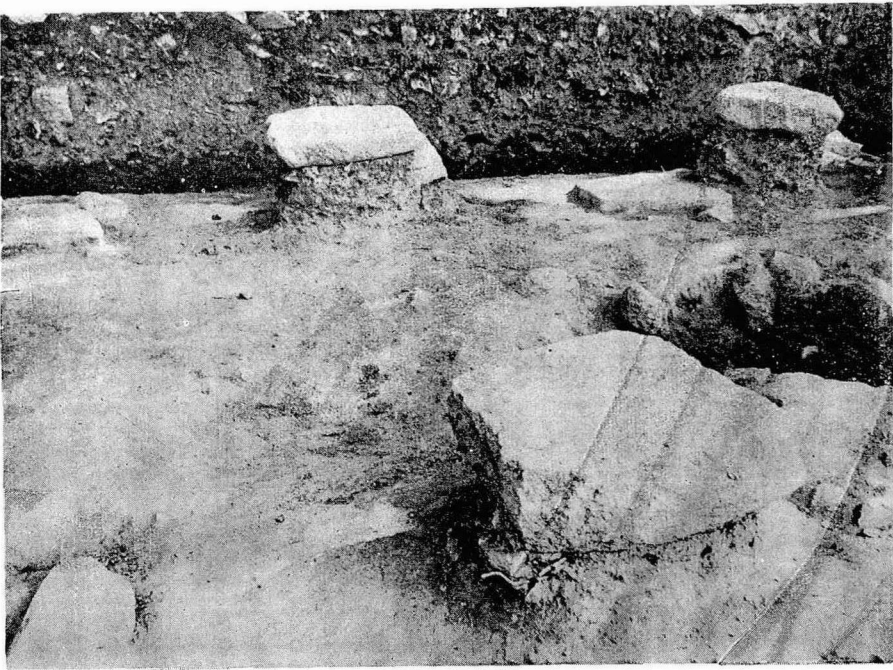


圖 2. 東廻廊址의 一部(西에서)

廻廊 基壇面에 設置된 施設로는 廻廊이 大雄殿에 連結되는 部分의 東쪽 礎石間에 彫出이 없고 上面을 굽게 다듬은 세개의 長方形 石材를 H形으로 놓아 信防石으로 한 것이 發見되어 이 部分에 廻廊 밖에서 안으로 通하는 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廻廊 北端에서 南쪽 세계間의 礎石 사이에는 암기와와를 여러겹 깔아 마치 고막이들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이 壁體 下部의 施設인지 또는 出入門의 下部 施設인지는 分明치 않았다. 그러나 다른 部分의 礎石 사이에는 어느 뚜렷한 施設이나 施設 흔적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역시 이곳에도 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러나 前記한 大雄殿 東쪽 部分의 石造 信防石의 경우와 달리 기와를 깔 것으로 보아 이것은 當初에 施設된 것은 아니고 創建 後의 어느 時期에 어떤 必要에 따라 原狀을 改造하여 門을 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밖에 施設로는 東廻廊이 北端에서 西折하여 無說殿과 連結되는 部分에서 無說殿 基壇에 接近하여 東廻廊의 마지막 기둥이 앞뒤에 놓이는 礎石지가 있고 그 사이에 廻廊 基壇面보다 높게 雜石이 쌓여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廻廊에서 無說殿 基壇에 오르는 階段이 있었던 것이 分明하다.

(다), 廻廊 東쪽 築臺 發見

東廻廊 東쪽의 李朝 重建時의 築臺보다 더 東쪽으로 丘陵과 區劃되는 當初의 築臺가 있을 것으로 豫想되어 大雄殿 東쪽 部分에서 南과 北의 두 곳에 李朝 築臺를 除去하며 東쪽으로 探索 트랜치를 넣었던 바 각각 廻廊 基壇 東邊에서 約六·五m 떨어져 巨石과 人頭大의 雜石으로 構築된 築臺가 發見되었다. 築臺 앞은 뚜렷한 舊地表가 나타났고 이 築臺 앞 舊地表 위에는 많은 古瓦片이 累積되어 있었으며 이들 古瓦片은 모두 統一新羅時代의 것이었다. 이 古瓦片은 두개의 築臺 探索 트랜치가운데서도 大雄殿 바로 東쪽이 되는 南쪽 트랜치에서 훨씬 두터웠으며 이것은 아마 廻廊 周邊에 흩어졌던 古瓦片이 아니고 大雄殿 周邊에 흩어졌던 古瓦片도 包含되어 있어 이런 結果가 된다 하다.

나, 西廻廊址

(1), 發掘 前의 狀況

西廻廊址 南半部는 現存 泛影樓 北쪽으로 한줄의 柱座있는 礎石들이 있고 基壇 西緣 가까이는 數株의 槲木 및 丹楓나무가 있었다. 北半部에는 南쪽에 巨大한 槐木과 작은 庭園樹가 몇株 있었고 一部 礎石은 地中에 묻혔으며 北端部는 北쪽 昆盧殿址에 연결되면서 완만한 경사지가 되었다.

이러한 狀況으로 보아 西廻廊 南半部는 日政時의 修理에서 創建 當初의 基壇이 많은 損傷을 입었을 것으로 豫測되었고 北半部 역시 遺構를 덮은 흙이 東廻廊에 比하여 많지 않았으므로 當初의 遺構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現存 廻廊址의 西緣部 南半部에서는 泛影樓 北쪽에 日政期 改築한 잔디를 임한 傾斜진 地表 끝에 築臺가 있어 이것이 大雄殿 西쪽에 서 極樂殿 마당으로 내려가는 階段에서 끝난다. 北半部는 역시 廻廊址의 西쪽 所謂 光學殿址와 그 北쪽의 좁은 地帶에 連結되면서 완만한 경사지게 내려가며 그 南쪽 一部分은 낮은 築臺로 끝나고 北쪽은 그대로 現地表에 連結되었다.

(2) 發掘經緯 및 結果

이 部分의 發掘에 있어서는 이미 東廻廊址에서 거의 完全하게 創建當初의 規模와 形態를 把握할 수 있는 遺構를 發見하였기에 그다지 큰 課題로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日人들의 손이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廻廊址 北半部에서의 廻廊 基壇 西緣部와 그 西쪽 낮은 部分과의 사이의 處理方法과 形態를 究明하는데 더 많은 注意가 기울여졌다.

(가), 基壇面 調査

發掘은 廻廊 北半部の 거의 全面에 걸쳐 實施되었고 李朝 重建以後 移動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되는 圓形柱座의 方形礎石을 北端部 가까이에서 檢出하였다. 이 部分은 東廻廊址와 달리 附近에서 流入되는 土砂가 比較的 적었기 때문에 李朝 重建時의 礎石 上面의 높이가 東廻廊에 比하여 낮았고 創建 當初의 基壇 흔적은 無說殿址 西쪽 部分에서 露出되었으나 東廻廊의 경우와 같이 明確하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李朝 重建時의 基壇面보다 十五乃至二十cm 밑에서 또 하나의 創建當初

의 면으로 생각되는 곳이 나타났으나 그 면이 李朝 重建時에 많은 損傷을 입었는지 東廻廊과 같이 安定되고 平坦한 면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基壇 西緣部 築臺 發見

西廻廊 基壇의 西緣部는 廻廊址 北半部 全面에서 發掘해 본 結果 現存 基壇 上面 西端에서 約 二乃至 三 m 西쪽에 人頭大의 塊石으로 쌓아 올린 築臺가 나타났고 그 바깥쪽으로 約 六十 cm 떨어져 面을 東쪽에 가진 낮은 築臺가 나타났다. 이들 두 築臺 사이는 排水溝로 使用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形態로 나타난 築臺는 現存 廻廊址 基壇 西端에서의 距離나 築臺의 形態 그리고 築臺 앞을 메우고 있던 흙속에서 發見된 古瓦나 磁器片 등의 遺物로 보아 新羅時代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기에 이것을 李朝 重建時의 基壇 끝 築臺로 認定하게 되었다. 이 李朝 築臺의 一部分을 남기고 發掘을 繼續한 結果 그 안쪽에서 다시 築臺 一部가 露出되었다. 이 새로 나타난 築臺는 現存 基壇 端部에서 約 五十 cm 西쪽에서 나타났으며 築臺石은 外面이 平坦한 不整形 四角石으로 쌓여졌고 그 築臺 뿌리는 現地表(廻廊卒)에서 約 一·八 m나 되었다.

이 築臺 밑뿌리 附近에서는 高麗初期의 것으로 생각되는 蓮花文 完形 瓦當을 비롯하여 그 以前의 遺物들로 出土되었고 또 이 築臺의 一部를 切斷한 内部 土層을 調査한 結果 큰 石器와 黃褐色의 基壇 構築土가 發見되었으므로 이 새로 나타난 築臺를 一旦 創建 當初의 西廻廊의 西緣 築臺로 斷定하였다.

(다)、階段址 發見

現在 大雄殿 西쪽의 極樂殿 뒷마당에서 大雄殿쪽으로부터 올라가는 十六段 三幅의 石階段이 있다. 이 階段의 石材 治石 手法이 新羅時代의 그것과는 많은 差異가 있고 또 極樂殿 周邊에 東西 廻廊이 있었다면 그 廻廊과 階段과의 關係가 매우 不自然스러워질 것들을 생각할때 現存 階段이 日政期 修理時에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事實을 究明하기 위하여 階段 南쪽을 發掘하여 보니 바닥은 極樂殿 地表보다 훨씬 낮았고 階段 밑 部分은 日政期 修理時에 構築한 것으로 생각되는 黃褐色 砂質土가 가득하였으며 階段 隅石 밑에는

積心石等이 전혀 發見되지 않았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現存 階段은 日政期에 便宜의으로 新造된 階段임이 거의 確實하게 判明되었다.

이에 反하여 西廻廊址 北端部에서는 廻廊 基壇의 西緣 築臺가 北竿柱 間 三間을 남기고 끝났으며 그 北쪽은 基壇 構築土가 그대로 傾斜지게 내려오고 있었다. 이 傾斜面에는 몇몇 石材가 있었고 이들은 階段 積心石과 階段石의 一部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 이 部分 廻廊 基壇 上面 中央에 新羅時代의 彫法으로 보이는 信防石이 세토막으로 破損된 채 놓여있어 이곳에 出入門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하였다.

이러한 結果로 여기에는 當初 柱間 三間에 걸친 넓은 階段이 있어 極樂殿 뒷쪽 마당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 같다.

柱間 三間에 걸친 넓은 階段은 우리 調査者들 常識으로는 좀 지나친 規模로 생각되나 日政時 新築 附加된 階段이 柱間 한間에 三幅의 階段을 만드는 점과 一脈相通되어 日人들이 修理할 當時 이곳에 柱間 三間에 걸친 세幅의 階段 흔적을 認識하고 新造 階段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無說殿址

(1) 發掘前 狀況

無說殿址는 一九六二年 가을 文化財管理局에 의하여 北쪽 臺地에서 流入된 土砂로 그 基壇 上面이 一部 묻혔던 것을 發掘하여 基壇上의 礎石을 모두 露出시키고 前面을 除外한 基壇 一部도 修理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미 礎石은 完全히 露出되어 있었고 基壇 上面에는 잔디로 덮혀 있었다. 基壇石의 前面은 兩端의 甲石과 그 밑의 面石(한장은 後補) 地臺石이 完存하였고 階段은 前面 네곳에 남아 있었으나 一個所만 完全하였다. 兩側面과 後面의 基壇石은 다른 石材를 利用한 後補物이 大部分이었으며 이들 後補物은 近來의 補修로 이루어진 것 같다.

(2) 發掘經緯 및 結果

이곳의 發掘은 우선 基壇 上面의 잔디를 除去하고 基壇 東쪽에 있던 後世의 建物로 破壞된 구멍들을 整理 清掃하는 일이었다. 그 외에 基壇

의 西端 한間만을 細密 調査하였다. 調査 結果 基壇 上面에서 建物の 南쪽 한間만을 除外한 全面에 걸쳐 花崗岩 小割石을 깔고 그 위에 진흙을 덮어 단단히 다졌던 事實이 確認되었다. 또한 진흙 위에는 원래 塼을 깔아 建物 床面을 마감하였음이 틀림없을 것으로 믿어졌다.

佛壇의 位置는 이 建물이 正面 八間 側面 四間이므로 建物 東西 中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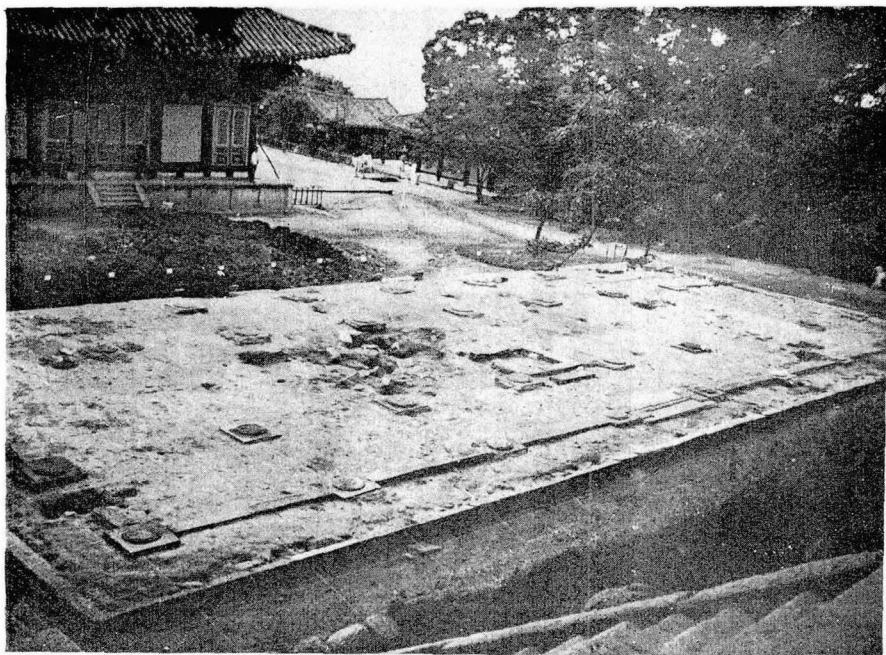


圖 3. 無說殿址 (東北에서)

線에 柱列이 세워지므로 南쪽으로부터 세제間的 中心柱 東쪽 한間에 자그마하게 마련되었던 것 같으며 遺存된 佛壇 地臺石은 한 두개 後補의 것이 確實하였다.

또 基壇 中央에서 조금 東쪽으로 礎石 밑과 基壇內部の 狀態를 確認하기 위하여 土層 트랜치를 넣어 보니 礎石 下部에는 巨大한 自然石을 접점이 쌓아 그 위에 礎石을 놓게 하였으며 其他 部分의 基壇 構築土 바닥에는 人頭大의 雜石을 깔고 基壇을 견고하게 補強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極樂殿 一廓

가. 發掘前 狀況

極樂殿 周邊은 그 前面과 東西部의 築臺가 모두 日政期의 修理로 當初의 遺構 遺存狀態가 좋지 못할 것으로 豫測되어 廻廊址의 檢出은 거의 無望할 것으로 생각되었고 極樂殿 北쪽 卽 光學殿址라고 불리는 部分이 現 極樂殿 마당보다 約 四十 cm 높아 많은 庭園樹가 있었으므로 여기에서의 廻廊址 檢出이 期待되었다.

나. 發掘經緯 및 結果

우선 트랜치를 가장 有望하다고 생각되었던 極樂殿 北쪽 中央 建物基壇狀으로 쌓인 石列內에 넣었고 이와 같이 그 北쪽 東便에도 트랜치를 넣었다. 그 結果 近世의 建物址로 생각되는 建物 遺址의 石列과 溫突用 구들 흔적이 나타났으나 적어도 李朝 以前의 建物址라고 생각되는 遺構는 찾지 못하였다.

특히 北쪽 東便의 트랜치에서는 二·三次의 트랜치 擴張과 近世 遺跡의 발굴을 調査하였으나 마지막에 到達한 것은 平坦한 舊地表이며 그 가운데 한개의 우물자리가 發見되었을 뿐이었다. 이 舊地表는 現 極樂殿 마당과 그 높이가 거의 같으므로 적어도 創建 當初에는 이곳에 아무런 建物도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發掘地 中央에서 發見된 우물 속에서는 高麗와 李朝時代의 磁器片들이 出土되었으나 大部分 李朝 磁器片이었다.

極樂殿 뒷쪽 中央部에 넣은 트랜치에서는 溫突의 煙道 흔적들이 몇몇

石材와 같이 나타났으나 곧除去整理하니 南半부에 褐色 砂質粘土로 된 廻廊 基壇같이 보이는 土層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것을 究明하기 위해 그 左右에 다시 트랜치를 넣었으나 뚜렷한 成果는 얻지 못하고 다만 李朝 重建時의 建物(廻廊) 礎石列이 東西로 한줄 나타났을 뿐이다. 그러나 이 礎石列 밑이나 다른 部分에서도 똑같이 계속 燒土와 腐蝕土가 나왔으며 심지어는 現 極樂殿 마당보다 三十乃至四十cm 아래 部分에서도 古瓦片等이 出土되는 狀態였다.

이 近處에서 注意하여야 할 遺構로서는 大雄殿 西廻廊 北半部 築臺에 近接한 建物의 基壇으로 생각되는 遺構였다. 이 建物址는 創建當初의 것은 勿論 아니고 아마도 出土位置나 長臺石 使用等으로 보아 高麗時代 끝에 建立된 建物 基壇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結論적으로 이 部分의 創建 當初의 建物址(廻廊址)는 이번 調査에서 確認하지 못하였다. 今後 이 附近의 調査를 續行한다 하더라도 廻廊址의 檢出은 거의 不可能할 것 같으므로 前記한 高麗期의 建物址 全貌를 確實히 밝히고 또 復元後에는 다시 發掘 調査가 이루어질 可能性이 없을 것이므로 계속 調査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學術資料를 얻는 것이 이번 調査의 重要な 問題點이었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遺構 調査에 有望하다고 믿어졌던 極樂殿 北쪽은 豫想外로 遺構 狀態가 좋지 못하였고 반대로 거의 創建 當初의 遺構를 發見하기 어려울 것으로 豫想했던 西廻廊 北쪽 部分에서는 廻廊의 흔적을 찾는데 成功하였다. 이곳은 極樂殿 西쪽 築臺가 끝나 築臺 밖의 階段을 올라 極樂殿 뒷마당에 오르게 되는 곳으로 이 部分은 極樂殿 西廻廊의 北端에 가까운 곳이다.

여기에 現在 露出된 柱座없는 方形礎石이 몇개 보이고 그 가운데 二個는 日政 修理時의 築臺 甲石이 이 위를 지나가고 있으므로 이들 礎石이 李朝 重建時의 礎石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으며 또 日人들의 修理가 原狀을 바꾸었음을 뚜렷이 나타냈다.

이 西廻廊址의 北半을 發掘한바 廻廊의 南쪽은 築臺 積心石이 가득차 있어 基壇土는 전혀 없었고 北端 가까운 柱間 三間에는 李朝 重建의

基壇 흔적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 李朝 基壇面의 一部를 남기고 繼續 그 밑을 調査하니 基壇 上面下 約 十二乃至二十cm에서 또 한 基壇面이 나타났다.

이 下部 基壇面의 一部에는 돌로 三面을 둘러 쌓고 그 앞도 역시 三面을 기와로 쌓은 부엌 아궁이 자리가 있었다. 이 遺構는 李朝 重建 基壇土에 의해 完全히 破壞되었기에 일단 李朝 重建 以前의 것으로 생각되나 創建 當初의 것은 勿論 아닌 것 같았다. 아마 大雄殿 東廻廊 創建 基壇面에서 볼 수 있었던 燒土와 雜石으로 된 遺構와 거의 같은 時期의 施設物인 것 같았다.

創建時의 基壇面에서는 創建時의 礎石이나 礎石址가 전혀 發見되지 않았고 그와 비슷한 흔적조차 찾지 못하였다. 이는 發掘 範圍가 매우 좁기 때문이던지 아니면 李朝 重建時의 礎石이 大雄殿 東廻廊址의 경우와는 달리 創建時의 礎石 位置를 그대로 利用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現象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무 檢出面積이 좁았기 때문에 可否를 斷定하기는 어려웠다.

西廻廊 北端部에서 意外로 成果를 얻었기에 다시 安養門 東쪽 廻廊 끝 即 泛影樓 西쪽 밑 部分을 發掘하였다. 그 結果에서 南쪽 石築은 매우 甚한 攪亂을 입었음이 밝혀졌고 基壇 北쪽은 比較的 安定된 基壇面이 露出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李朝 重建時의 것인지 創建 當初의 것인지 分明하지 않았다. 다만 廻廊 礎石 밑의 大石 積心材 狀態가 大雄殿 東廻廊의 것과 비슷한 點 또한 礎石 밑을 小石으로 괴어 礎石을 약간 올린 點等으로는 創建時의 基壇인지도 알 수 없었으나 이것만으로는 創建 當初의 것이라고 斷定지어 말하기는 어려웠다. 이 廻廊이 이 附近에서 北折하는 것이 豫測되었으나 分明히 밝힐 만한 根據는 전혀 없었고 단지 基壇 밖에서 日政期의 築臺 修理에서도 攪亂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石群이 나타났을 뿐이다. 그러나 發見된 石群의 正確한 解釋은 어렵고 혹시 昇天橋의 下部 積心材 一部가 遺存된 것이 아닌가 하는 推定은 가질 만하다. 하여간 創建 當初의 것이 아닌은 틀림없을 것 같았다. 이 部分도 繼續 調査할 餘地가 있으나 그렇다고 더 새롭고 많은

成果는 期待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極樂殿 東廻廊의 有無 및 大雄殿 西廻廊 西緣 築臺를 南쪽에서 確認하기 위하여 釋迦塔 西쪽 廻廊址 밖의 傾斜地를 發掘하였으나 이 部分도 역시 日政期 修理로 본 階段 南쪽의 경우와 같이 日政 修理時의 構築土만이 나타났을 뿐이다.

極樂殿 一廓의 調査는 다른 地域의 調査와 달리 가장 어려웠고 일은 成果도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今後 이 一廓의 發掘 調査를 續行한다면 極樂殿 北쪽 部分의 樹木을 完全히 除去하고 全面 發掘을 本格的으로 하여야 되며 現存 階段 北쪽 槐木 역시 除去하여 그 下部 發掘 調査를 하므로서 이번 調査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것을 意外로 일게 될 可能性도 없지 않다.

3. 毘盧殿址 一廓 가, 發掘前 狀況

毘盧殿址는 基壇 上面의 東北隅 一部를 除外하고는 거의 完全히 露出되어 있었고 基壇部는 前面 以外의 三面이 完全히 地下에 埋沒되어 있었다. 建物址 南쪽은 前庭이 되어 無說殿 基壇 北端 가까이에서 近世에 쌓은 二段의 낮은 築臺로 끝났으며 前庭 西쪽 앞은 無說殿 西쪽을 通하여 이 毘盧殿址에 들어 오는 완만한 階段이 있다. 前庭 東쪽은 觀音殿址가 있는 臺地끝의 築臺가 있으며 이 築臺는 建物 基壇 東邊과 거의 一致하였다. 建物址의 西쪽은 平地로 계속되어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었으며 松林이 무성하였다.

나, 發掘經緯 및 結果

우선 毘盧殿址의 基壇을 完全히 露出시키기 위해 基壇은 東·西側과 北側을 發掘하였다. 그 結果 基壇은 西쪽 面과 東面 南端에 基壇 甲石이 남아있고 그 외에는 前面과 西面 그리고 東面 南端部에 基壇 地臺石 및 面石이 거의 完全히 露出되었다. 그러나 基壇 東面의 大部分과 後面은 모두 後補로 된 것이었으며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 部分의 後補物이 毘盧殿 中央에 있는 佛壇石과 같은 樣式으로 된 점이었다. 그러나 그 크기는 약간 컸다. 이 石材가 다른 佛堂에서 使用되었던 佛壇臺石이었

다면 그 크거나 數量으로 보아 規模가 상당히 큰 建物에 使用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基壇 上面에 남아있는 佛壇臺石은 建物 中央에 자리잡아 地台·面石 甲石 및 童子柱를 一枚石으로 彫刻한 것이며 内部 뒷쪽은 左右에 佛台 座를 놓고 그 사이에는 數石이 있었다.



圖 4. 毘盧殿址 (北에서)

佛壇外部는 建物 內에 全面 博瓦를 깔았던 것 같으며 現在 도 상당량의 博瓦가 남아 있었다. 礎石은 거의 完存하나 그 가운데 몇개는 다른 建物에 사용되었던 礎石을 轉用한 것이었다.

특히 注意를 끌게한 部分은 基壇 正面 中央에 있는 階段址로서 이 階段은 現在 隅石 받침 石만이 남았으나 그 形態로 보아 大雄殿이나 極樂殿 또는 無說殿等の 階段과 같이 隅石이 一枚石으로 된 것이 아니고 隅石이 모두 別石으로 되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手法은 一枚石의 手法에 先行하는 것으로 이 建物址는 統一新羅時代의 建物址임에 틀림없지 않은가 推定되며 現存 佛國寺의 어느 建物 基壇보다 오랜 것으로 믿어진다.

建物 基壇을 完全히 露出시킴과 同時 基壇 北쪽과 西쪽의 트랜치를 擴張시켜 보니 基壇에서 約二m 떨어진 곳에 整然한 石牆이 發見되었었다. 특히 東北隅部에서 石牆 隅部가 完全하게 나타났었다. 이 石牆이 發見되었을 때 그 솜씨가 大雄殿 西廻廊址에서 나타난 李朝期의 築台에 비해 훨씬 그 手法이 整然하여 創建當初의 石牆이 아닌가 생각하였으나 調査가 進行됨에 따라 그렇지 않음이 밝혀졌다. 卽 西쪽에서 나타난 石牆의 一部를 끊어 본 結果 石牆사이와 그 밑에서 高麗 및 李朝時代의 磁器片과 古瓦片이 出土됨으로써 創建後에 築造 되었음이 確實하게 되었다. 基壇 西쪽은 近世의 것으로 생각되는 溫突의 煙道를 가진 小規模의 建物址가 毘盧殿 基壇에 接近하여 있었을 뿐 그 밑에서는 아무런 建物遺構도 나타나지 않았었다.

前庭 앞 二重 築台 附近에 毘盧殿 中央部를 中心으로 發掘하니 毘盧殿 中心線上에 幅約一·五m의 낮은 階段址가 나타났고 그 左右에는 大形 板石으로 마치 建物の 基壇 같이 만들었다. 이 板石으로 된 壇의 南쪽은 舊地表가 나타났으며 無說殿 뒤쪽의 舊地表보다 약간 높았으나 當然히 그 地表에 連結될 것으로 생각되었었다. 板石과 無說殿 北端 基壇과의 거리는 約五m였다.

4. 觀音殿址 一廓 가, 發掘前 狀況

觀音殿址는 無說殿 東北의 높은 台地 위에 자리잡고 있으며 毘盧殿址

의 東쪽에 位置한다. 이 台地에는 無說殿 基壇 東쪽에서 台地 위로 올라가는 石階段이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基壇 西쪽은 平地가 계속되어 毘盧殿址 東쪽 築台에 到達하고 台地 西南에는 毘盧殿址로 내려가는 조출한 階段이 있었다.

建物址 基壇 上面과 礎石等の 既存 遺構는 모두 最近에 地上에 露出시켜졌고 基壇은 毘盧殿址의 경우와 같이 前面만 露出되고 兩側面과 後面은 地中에 埋沒되어 있었다. 前面 基壇 中央에는 階段이 있었고 兩端과 階段 위의 甲石은 移動된채 露出되었고 大部分의 甲石과 面石은 缺失되었다. 이 建物址의 基壇에서 注意를 끌었던 것은 基壇 前面 兩端에 있는 隅部 甲石 上面의 形態이니 즉 上面을 밖으로 傾斜시키고 隅角部에 陵線을 뚜렷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大雄殿이나 極樂殿·毘盧殿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그 手法은 時代가 내려오는 것을 말해 주는 證據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점과 正面에 施設된 階段 隅石의 鈍重한 手法으로 보아 다른 建物の 基壇 形式보다는 상당히 時代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新羅時代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建物 前庭에는 基壇 中心線에서 約二m쯤 西偏하고 基壇 外緣에서 約六m 南쪽에 石燈 下台로 보이는 蓮花台座가 損傷을 입은 채 남아 있었다.

나, 發掘經緯 및 結果

우선 발굴은 埋沒된 建物 基壇을 露出시키는데서부터 始作되었으며 發掘 結果 埋沒되었던 建物 基壇은 意外로 狀態가 良好하여 崩壞나 移動이 多少있기는 하였으나 地台石은 勿論 大部分의 甲石·面石을 發見할 수 있었다. 基壇 上面에는 中央 後壁에 불허서 佛壇台石이 있고 左右側面에도 亦是 幅이 좁은 佛壇台石으로 생각되는 施設이 있었으며 礎石은 모두 完存하였고 佛壇 以外の 基壇面에는 全面에 博瓦를 깔았다. 基壇의 調査를 위해 發掘트랜치를 넣었던 곳을 擴張시켜 基壇 周邊의 狀況을 調査한 結果 毘盧殿址 周邊에서 發見하였던 것과 같은 石牆이 北쪽과 東쪽에서 나타났으며 이 중 東쪽의 것은 南쪽으로 台地 끝 가까이 까지 連長됨을 알 수 있었다. 이들 石牆 역시 李朝期의 것으로 생각

되었으나 北쪽의 것은 石牆이 아닌 石築같이 보였고 특히 石築 北쪽의 自然石列은 후시 創建 當初에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調査는 다시 古今創記의 記錄에 보이는 觀音殿 東과 西쪽의 建物址 究明으로 들어가 東쪽 石牆 밖과 東南쪽의 두 곳에 트랜치를 넣었다. 그러나 石牆 밖에서는 現地表下 約 一·三m에서 舊地表가 들어나고 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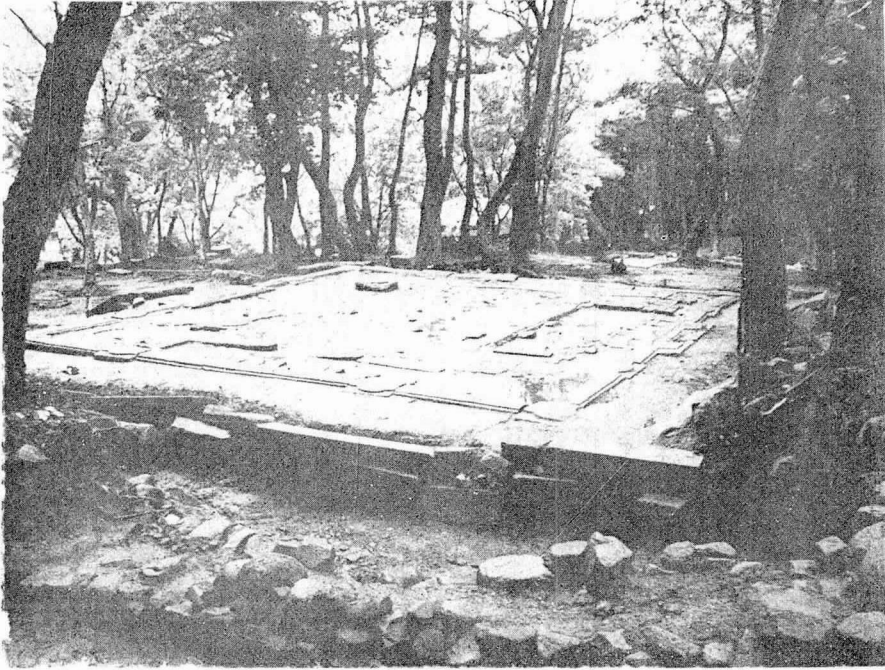


圖 5. 觀音殿址 (東北에서)

쪽 台地 끝 가까이에서는 約 四十cm 되는 곳에서 舊地表가 나타났지만 아무런 建物址도 發見되는 못하였다.

基壇 西쪽 平地에는 몇개의 柱座없는 方形礎石이 있었으나 이것은 李朝期의 것으로 보이는 礎石들이었으며 創建 當初의 建物址는 發見하지 못하였다.

또한 基壇 中央 南쪽에 南北의 트랜치를 넣어 石燈 位置와 其他 遺構 存在를 探索하였으나 어떤 施設의 흔적은 물론 石燈 位置조차도 發見할 수가 없었다.

끝으로 이 觀音殿址의 台地 原狀을 밝히기 위하여 台地 南쪽 石階段의 西쪽과 基壇 西쪽에 트랜치를 넣은 結果 南쪽에서는 現存 石階段의 原位置에서 約 五十cm 東쪽으로 옮겨졌음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石階段의 原位置는 觀音殿의 南北 中心線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石階段의 原位置 西쪽에서는 石牆뿌리가 露出되고 그 牆南쪽의 急傾斜地에는 二段의 階段狀 石築이 있었고 그 밑에는 높이 約 一m의 築台가 나타났다. 이 築台는 無說殿 基壇 北端에서 約 五m의 北쪽에 位置하므로 前記한 毘盧殿址 南쪽의 板石 距離와 一致됨을 알 수 있었다.

이 狀態는 石階 東쪽 트랜치에서도 再確認되었으므로 原狀 調査는 거의 完全을 기하였다.

建物 基壇 西쪽의 트랜치에서는 自然土層面이 觀音殿址에서 毘盧殿址 쪽으로 傾斜를 이루면서 내려가 基壇에서 約 七m 西에 石築뿌리 흔적으로 보이는 石列이 나타났다. 그 西쪽에서는 二段의 階段狀 石列이 또 나타났다. 西端의 石列은 觀音殿 西側 基壇에서 約 九·五m였고 높이는 五十cm이다. 이 階段狀의 築臺는 南北으로 가로질러 觀音殿과 毘盧殿의 境界를 이루고 無說殿 後面의 東西 築臺와 連結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지막으로 基壇 東쪽 約 十五m에 있는 小丘陵과 觀音殿 周邊의 平地와의 關係를 알기 위한 트랜치를 넣었다. 그 결과 西쪽의 경우와 비슷하게 階段狀의 石列이 나타났고 傾斜에 따라 올라갔다. 이러한 丘陵 傾斜面의 處理方法은 大雄殿 東廻廊址의 東쪽이나 毘盧殿址의 東쪽에서

나 모두 共通되는 手法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5. 出土 遺物

가, 瓦埴類

發掘 調査 地域 모든 部分에서 比較的 많은 古瓦片이 出土되었다. 그 가운데는 李朝時代의 蓋瓦가 가장 그 數量이 많았고 그 다음이 新羅時代의 것이었다. 新羅時代의 기와는 前記한 바와 같이 大雄殿 東廻廊址 東쪽에서 發見된 創建 當初의 築臺 앞에서가 가장 많았다. 意外로 적었던 것은 高麗時代의 기와로 採集된 것은 不過 數點에 지나지 않았다.

出土된 기와의 種類는 安막새기와를 비롯하여 숫막새기와 鬼面片·鴟尾片 등이 가장 많았고 埴片도 적지 않았다. 이번에 發見된 瓦當 文樣 가운데는 아직 學界에 紹介되지 않은 새로운 것도 二·三點되며 나머지는 이미 알려진 約 四十種의 瓦當片들이었다.

나, 土器 및 陶磁器類

土器類는 完形이 한點도 없었고 모두 破片이었다. 土器 種類로는 新羅 土器片과 高麗時代의 土器片들이 약간 出土되었고 그중에는 陶硯片도 들어 있었다.

陶磁器類로는 李朝磁器가 大部分이었고 특히 粉靑磁器 중에는 「慶州」 「長興」 등의 銘文이 있는 것도 몇點 있었다. 그 외에 高麗磁器片도 약간 發見되었다.

다, 其他 遺物

瓦埴類와 土陶類 以外에 用途가 뚜렷하지 못한 鐵片이 數點 發見되었다.

特記 할만한 것으로는 塔 相輪部의 寶輪으로 사용하였던 石材 破片 一點이 出土된 점이다. 이 石材는 圓形으로 되었고 圓周에는 蓮花를 陽刻하고 아랫면에는 人字 臺工形을 彫出시키고 中央에는 擦柱孔이 보인다. 이것은 現存 多寶塔의 것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塔의 用材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 밖에 石佛頭의 螺髮片이 있었으나 破損이 甚해 크기는 짐작하기 어려우나 丈六佛 程度의 큰 佛像이 아니었을까 느껴진다.

四、實測調査 概要

實測調査는 發掘地의 實測과 現存 木造建物, 그리고 寺域 全體에 걸쳐 이루어졌다. 測器는 트란싯드와 레벨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計測은 스틸테이프로서 正確을 기하였다.

一、平面 實測值

兩塔東西中心間	八四·五三五
紫霞門釋迦塔南北中心間	四四·五四
釋迦塔大雄殿南北中心間	六七·四〇
大雄殿無說殿南北中心間	一〇三·七四
大雄殿毘盧殿南北中心間	一〇六·九一
大雄殿觀音殿南北中心間	一一九·二八
安養門極樂殿南北中心間	六八·八一
極樂殿大雄殿南北中心間	四一·四三
極樂殿大雄殿東西中心間	一五三·二一

(單位: 曲尺)

二、境內主要木造建築物實測值

備考	泛影樓		紫霞門		極樂殿		大雄殿		殿別		區分
	多包系		多包系		多包系		多包系		樣式		
多包系에 柱心包折 衷式	多包系		多包系		多包系		多包系		樣式		공포
	外三出目 七포	內三出目 七포	外二出目 五포	內二出目 五포	外二出目 五포	內二出目 五포	外三出目 七포	內四出目 九포	지붕		柱間總長
各建物合 閣規模不 同用尺以下	팔작지붕		팔작지붕		팔작지붕		팔작지붕		柱間總長		御間
	側 三〇面	正 一〇七面	側 一七〇面	正 三〇四·五面	側 面	正 面	側 四五·五面	正 四六·〇面	道里柱間		御間
		一〇七	一一·八五		一一·九		一七·七〇		御間		御間
左右夾間의 平均值			一一·四五		九〇		八七五		夾間		夾間
左右退間의 平均值							八二三		退間		退間
							一一·〇〇		樑		御間
前後夾間의 平均值		其一間 一〇·五	八·五〇		八·九五		八七五		夾間		夾間
前後退間의 平均值		其二間 二·五					八·〇〇		退間		退間
平柱高의 最高值		八·六	八·二元		八·五五		二二·二五		柱高		柱高
	最小值 一·元	最大值 一·三	最小值 一·元	最大值 一·三	最小值 一·五	最大值 一·七	最小值 一·二	最大值 一·三	柱徑		柱徑
新羅時代 樣式	架構式		架構式		架構式		架構式		基壇樣式		基壇樣式
			四八·一〇		四八·二二		六二·四五		基壇規模		前面長
			二〇·八五		四〇·四三		五五·七三		基壇規模		側面長
			一一·〇〇		三五·一八·〇五		四二·三三·四七		基壇高		基壇高
地表面 높이	一五·六〇		二六·九七		二六·八三		四二·九〇		總高		總高
地表面 높이	二三·四〇		二五·五〇								

(單位: 曲尺)

